

초서의 『캔터베리 이야기』에 나타난 여성의 권위, 종교, 그리고 세속 권력*

유 인 철

연세대학교

I. 초서와 여성

여성은 초서 연구에서 주요 연구 주제의 하나이다. 중세시대의 지배적인 남성 중심 문화에 내재된 반여성주의적(anti-feministic) 태도와 달리, 여성에 대해 우호적이고 억압 받는 여성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초서의 특성을 연구자들이 주목해 왔기 때문이다. 『트로일루스와 크리세이드』(*Troilus and Criseyde*)에서 남자를 배반하는 크리세이드에게 연민을 토로하는 화자(Narrator) 덕분에 이미 16세기 초에 초서는 “모든 여성의 친구”(all womanis friend)¹라고 불리어진다. 20세기 초, 키트릿지(George Lyman Kittredge)는 「바스 부인의 서문과 이야기」(*The Wife of Bath's Prologue and Tale*)를 논의하면서 남성을 지배하고자 하는 여성의 욕망에 주목함으로써, 여성의 감추어진 욕망을 드러내는 “대변자”로서 초서가 부각된다.

* 이 논문은 2013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3S1A5B5A07048929).

¹ Gavin Douglas, “Venerable Chaucer, All Womanis Friend.” *Chaucer: The Critical Heritage. Volume 1, 1385-1837*. Ed. Derek Brewer. London: Routledge and Kegan Paul. 86.

지난 20여 년간 진행된 초서의 여성에 대한 주목할 만한 연구는, 그를 여성의 “친구” 혹은 “대변자”로 파악하는 이전의 논의를 비판적으로 재검토함으로써, 그를 페미니스트(feminist)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논의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초서를 여성의 “친구”로만 보기 어렵게 된 것은,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뚜렷이 드러내지 않는 “형세관망자”(a fence sitter)(Sanderlin 171)로서 그의 “모호한 본성”(equivocal nature)(Diamond 65)이 주요한 논의 대상이 되면서, 여성의 “친구”와는 상반되는 그의 태도 또한 주목받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여성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뿐만 아니라 남성 우월적인 가부장제적 시각을 포함하고 있어서, 그는 여성의 “친구”이지만 또한 “가장 규정하기 어려운 [여성의] 친구 중의 한 사람”(one of the most elusive friends)(Diamond 65)으로 평가 받는다.

초서가 여성에 대해 상충되는 두 가지 인식을 모두 갖고 있어 애매한 태도를 취하기 때문에, 페미니스트로서 초서를 규정하는 것에도 찬반양론이 지속된다. 1980년대 말에 페미니스트로서 초서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시작한 것은 바로 딘쇼(Carolyn Dinshaw)이다. 『초서의 성의 시학』(*Chaucer's Sexual Poetics*)에서 신비평(New Criticism)과 주석비평(Exegetical Criticism)을 남성적인 방법이라고 거부하고, 여성의 관점에서 작품을 바라 볼 것을 제안한 그녀는 초서를 여성의 문제에 관심을 가진 페미니스트의 원형(proto-feminist)이라고 처음 규정한다. 반면에 헨슨(Elaine Tuttle Hansen)은 『초서와 젠더의 허구』(*Chaucer and the Fictions of Gender*)에서 딘쇼가 그려낸 페미니스트의 원형으로서의 초서는 허구임을 주장한다. 헨슨은 초서가 바스 부인을 통해 당대 여성의 목소리를 진실하게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녀의 “여성성의 부재와 [그녀에 대한] 남성의 염려”(feminine absence and masculine anxiety)(12)를 드러낼 뿐이라고 단정한다. 초서를 페미니스트로 보는 딘쇼와 그를 페미니스트로 인정하지 않는 헨슨과 달리, 크레인(Susan Crane)은 『초서의 「캔터베리 이야기」에 나타난 젠더와 로맨스』(*Gender and Romance in Chaucer's "Canterbury Tales"*)에서 초서를 한계를 갖는 페미니스트로 인정함으로써, 딘쇼와 헨슨의 양극단론의 절충을 시도한다. 크레인은 바스 부인의 「이야기」에 대해 논의하면서, 그녀가 보여주는 자유분방한 성(sexuality)이 “여성의 지배력이 갖는 사회 통념을 벗어나는 가능성을 찬양할”(celebrates the transgressive potential of women's sovereignty) (130) 뿐만 아니라 “허가된 권위가 아니라 점유된 권력으로서 지배력을 표현한다”

(expresses sovereignty as seized power rather than sanctioned authority) (130-31)고 주장한다. 즉 크레인은 바스 부인의 여성성을 찬양하면서도 그것이 남성에 의해 제한 받는 한계를 갖는다고 보고 있다.

초서를 페미니스트로 규정하거나 혹은 페미니스트로서 그의 한계를 찾으려는 기존의 논의는 그와 여성에 대한 논의를 심화시키기는 하였으나, 그가 여성을 바라보는 시각 전체를 온전히 보여주지는 못했다. 여성의 “친구”이며 “대변자”로서 남성과 대등한 존재로 여성을 바라보고, 또한 남성 시인으로서 가부장제적 시각에서 여성을 열등한 존재로 파악하는 등 두 가지의 상반된 시각을 넘어, 여성을 남성보다 월등히 우월한 존재, 따라서 받들어 우러러 봐야할 대상으로 파악하는 초서의 관점은 충분히 논의 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본 논문은 전통적 남녀의 상하 질서를 전복(subversion)시키고 여성과 남성의 관계를 역전된 상하 관계로 재인식하는 초서가, 여성을 권위 있는 존재로 인정하는 페미니스트이자² 여성의 “추앙자”(reverer)라고 주장한다. 초서를 여성의 “추앙자”로서 파악할 수 있는 근거는, 그가 종교적 관점에서 여성을 추앙하는 당시의 통념을 탈피하고, 그의 작품에서 다양한 신분의 여성을 추앙의 대상으로 설정한다는 점이다. 중세 후기에 성모 마리아(Virgin Mary)에 대한 숭배가 문화 전반에서 급속도로 확산되고 존경받는 성녀와 여성 신비가(female saints and mystics)가 등장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고려하면(Whitney 309), 여성을 추앙의 대상으로 파악하는 것은 초서만의 특이한 점이라 보기는 어렵다. 초서의 여성관에서 주목할 것은 추앙 대상의 보편성, 즉 탁월한 영적(spiritual) 능력을 갖는 성녀뿐 아니라, 공주와 평범한 농부의 딸과 같은 세속 여성도 추앙의 대상이 된다는 점이다. 여성의 “추앙자”로서 초서는 당대 지배적인 영적 여성관의 범주를 뛰어넘어, 세속의 삶을 사는 여성도 신분에 상관없이 우러러 볼 대상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여성이 초서의 “추앙”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남성 중심의 가부장제 사회체제에서 여성이 남성에게 단지 복종하거나 침묵하는 열등한 지위에 머무르지 않고, 남성과 동등함을 넘어 남성을 능가하는 자질과 능력을 갖춘

² 애쉬튼(Gail Ashton)은 페미니즘 연구의 공통된 목표의 하나를 “전통적인 가부장제 혹은 남성중심의 질서와 권위 개념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것”(to question traditional patriarchy or male-oriented notions of order and authority)으로 설정한다(369). 따라서 로마시대 이래로 남성의 전유물로 받아들여진 권위(Scullard 219)를 여성에게 부여하는 초서는 페미니스트라 할 수 있다.

인물로 여성을 인식하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초서의 『캔터베리 이야기』(*The Canterbury Tales*) 중에서 내용상 뚜렷한 차이 때문에 거의 함께 논의되지 못한 세 「이야기」, 즉 「두 번째 수녀 이야기」(*The Second Nun's Tale*), 「변호사 이야기」(*The Man of Law's Tale*), 그리고 「학자 이야기」(*The Clerk's Tale*)에 주목해서, 세 「이야기」의 여주인공들이 공통적으로 권위(authority)를 갖는다는 점에서 초서가 여성의 “추앙자”라는 것을 확인하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종교 그리고 세속 권력과의 동적인 관계 속에서 여성의 권위 형성을 파악한다. 즉 세 여주인공들이 갖는 다양한 자질이 종교와 세속 권력에 의해 인정받음으로써 권위를 갖게 되고, 새로운 권위의 자리에 오르는 과정을 논의한다. 또한 본 논문은 자신들을 억압하고 통제 하려는 종교와 세속 권력의 공세에 맞서고 대항함으로써 세 여주인공들이 또 다른 형태의 권위를 갖게 된다는 것을 밝히려고 한다.

II. 중세 후기 여성과 권위

초서의 세 「이야기」의 여주인공들이 갖는 권위를 논의하면서 먼저 유의해야 할 것은, 중세 후기의 여성들은 교회법(Canon Law)과 법률에 의해 그리고 대다수 문학 작품에서 남성에게 종속된 열등한 존재로 규정되고 묘사되기 때문에, 초서의 작품에 나타난 여성의 권위에 대한 논의가 시대착오적일 수 있다는 점이다. 여성이 가르치는 행위를 금함으로써 성경(the Bible)은 여성이 권위 있는 목소리를 가질 가능성을 봉쇄하고,³ 당시 일상적인 삶을 지배하는 교회법도 여성이 열등한 존재여서 남성의 권위 하에 있어야 한다는 학자들의 신념을 반영하고 있다(Szarmach et al. 809). 이 같은 성경과 교회의 가르침에 영향을 받은 대다수의 문학 작품도 여성을 열등한 존재로 묘사하거나⁴ 심지어는 남성을 파멸로 유인하

³ 예를 들면 성 바오로(St Paul)는 디모테(Timothy)에게 보낸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하지만 나는 여자가 가르치는 것도, 남자에게 권위를 갖는 것도 참지 않을 것이다”(But I suffer not a woman to teach, nor to usurp authority over the man)(1 Timothy 2.2).

⁴ 중세 여성의 지위에 대한 연구에서, 캐러스(Ruth Mazo Karras)는 인류를 타락시킨 이브(Eve)의 후예인 여성들이 욕망의 죄 때문에 카리스마적으로 천할 뿐 아니라, 오만함(pride)의 죄에 물들어 있는 것으로 인식되었다고 주장한다(109-11).

는 유혹자로서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⁵ 중세 후기 여성의 권위 논의는 시대상과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또한 1066년의 노르만 정복(the Norman Conquest) 이후 영국에서 전체적인 여성의 법률상의 권리가 약화되고 이 같은 상황은 초서의 시대인 14세기 후반까지 지속되기 때문에 중세 후기 시대와 여성의 권위는 관련성이 적어 보인다.⁶

하지만 여성을 열등하고 남성에게 종속된 존재로 묘사한 문학작품이나 이와 같이 규정한 교회법이나 일반 법률 규정과 달리, 12세기 이후의 중세 후기 역사는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여성들이 권위를 갖고 활동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⁷ 1146년 작은 수녀원에서 활동하던 수녀 힐데가드(Hildegard von Bingen)는 당대 대표적 설교가인 버나드(Bernard of Clairvaux c. 1090-1153)에게 편지를 써서, “자신의 목소리가 대중에게 알려 지게 하고, 자신의 신을 접촉한 것에 대한 강력한 신학적 논쟁을 시작한다”(to make her words heard in public and to enter into a powerful theological discussion about her personal contacts with the Godhead)(Classen 112). 12세기 헨리(Henry) 2세의 궁정에서 마리(Marie de France)는 라틴어가 아닌 지방어(vernacular), 즉 앵글로-노먼(Anglo-Norman)으로 짧은 로맨스(romance)작품, 즉 레이(lais)를 써서 서유럽 최초의 여성 작가로 등장한다. 이와 같이 힐데가드와 마리는 12세기에 이미 자신들의 언어의 힘을 믿고 공개적인 발언을 시작하는 여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 줄 뿐만 아니라, 이 시기의 여성이 기존의 역사 연구가 주장한 것 보다 “지적인 영역과 실제 영역의 문제에 대해 상당히 더 많은 영향을 미쳤다”(enjoyed considerably more influence both in intellectual and in pragmatic matters)는 사실을 확인시켜

⁵ 중세 후기 문학 작품에 드러나는 남성의 유혹자로서 여성의 모습은, 『가웨인경과 녹색의 기사』(*Sir Gawain and the Green Knight*)에서 가웨인을 유혹하는 성주 부인(Lady)에게서 잘 드러난다. 특히 Fitt 3. 1178-1240 참조.

⁶ 노르만 정복 이후 도입된 봉건제법(feudal laws) 규정에 따르면, 미혼 여성 혹은 미망인과 달리 결혼한 여성은 모든 권리가 소멸되고 완전히 남편의 통제 하에 놓이게 되며, 여성은 공적인 직책이나 권위를 가질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Szarmach et al. 808-809).

⁷ 배럿(Alexandra Barratt)은 중세 후기의 가부장제 사회에서 남성의 억압적 권위에 대응하는 여성의 전략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분류해서 설명한다(7-16): 여성은 자신의 경험을 남성과는 다른 권위의 근거로 제시하거나, 이전의 여성처럼 남성의 권위에 복종하고 침묵하기도 하고, 특히 여성 작가들의 경우에는 “번역자 혹은 다른 부차적인 역할로 남성의 권위에 의존한다”(attach themselves to male authority as translators or in some other ancillary role)(12).

준다(Classen 133).

한편, 영주(lord)인 남편이 십자군 전쟁이나 다른 전쟁에 참가한 경우, 영주의 부인은 집안일을 책임지고 관장하며 상당한 권위를 행사한다. 또한 부재중인 남편의 권위를 대신 하는 것 뿐 아니라, 밀(Carol M. Meale)이 지적하는 것처럼, 초서 시대인 “1350년부터 영국 사회에서...여성의 역할은 다양하고 유동적이 된다”(English society from 1350 onwards...women’s roles were diverse and themselves in a state of flux)(87). 여성들이 흑사병 창궐 이후 확장하는 경제생활에 참여하기도 하고, 학문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주체적인 활동을 시작한 것이다. 이와 같이 14세기 중반부터 자율적이며 주체적인 여성이 등장했다는 역사적 사실은, 초서의 세 「이야기」에서 여성이 권위를 갖고 사회활동을 함으로써 남성의 추앙을 받는 존재로 지위가 격상될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III. 여성의 세 가지 권위, 종교 그리고 세속 권력⁸

초서의 「두 번째 수녀 이야기」, 「변호사 이야기」, 그리고 「학자 이야기」의 주인공 여성, 세실리아(Cecilia), 콘스탄스(Constance), 그리고 그리셀다

⁸ 베버(Weber)의 이론적 논의는 권위와 권력의 개념의 차이를 명확히 드러내 준다. 베버는 독일어로 “Macht”(“Power”)와 “Herrschaft”(“Authority” 혹은 “Domination”)을 사용해 권력과 권위의 개념을 대비시킨다. 권력과 권위는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같은 의미를 갖지만, 권력은 타인(들)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키는 것을 지칭하는 반면, 권위는 권력에 정당성(legitimacy)이 더해질 때 행사 가능하며, 정당성은 자발적 순응(voluntary compliance)에 의해 담보된다고 베버는 설명한다(941-54). 베버의 권력과 권위 구분 논의는, 그 자신이 인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고대 로마 시대 권력(imperium)과 권위(auctoritas) 구분과 크게 닮아 있다. 아우구스투스(Augustus) 황제 시대 법률을 연구한 칠버(G. E. F. Chilver)에 따르면, 당시 “권력은 통치자의 무기이며, 권위는 직접적인 명령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희망사항이 실행되게 하는 지렛대이다”(Imperium is the weapon of a commander, auctoritas a lever by which a man can get his wishes carried out without using the language of direct order)(426). 세 「이야기」의 세 여성들은 명령이나 요청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들의 탁월한 자질이 다른 사람들 혹은 신(God)에 의해 자발적으로 인정받음으로써 이들은 권위를 갖게 되는 것이다. 이에 반해 세 「이야기」에서 모습을 드러내는 세속 권력은 다른 사람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리고 종종 의지에 반해서 복종해야 하는 명령을 통해 구현된다.

(Griselda)가 갖는 권위는 다음 두 가지 관점에서 논의가 가능하다: 여성은 어떤 형태의 권위를 갖고 그 권위의 원천은 무엇인가? 그리고 여성의 권위는 어떤 과정을 거쳐 획득되고 또 발현되는가? 사회과학자들과 서양 중세학자들의 논의를 근거로, 본 논문은 세 「이야기」의 여주인공들이 공통적으로 카리스마적(charismatic) 권위, 지위의(positional) 권위, 그리고 영적 권위라고 부를 수 있는 세 가지 다른, 하지만 밀접하게 연관된 권위를 갖는다고 본다.⁹

독일의 사회과학자 베버(Max Weber)의 정의에 따르면, 카리스마적 권위는 “자신의 계시, 영웅적 행위 혹은 모범적 자질을 [다른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신뢰해서 복종을 하는 카리스마를 갖춘 지도자”(the charismatically qualified leader...who is obeyed by virtue of personal trust in his revelation, his heroism, or his exemplary qualities)(Kalberg 193)가 갖는 권위다. 세 「이야기」의 여주인공들이 “계시”를 주거나 “영웅적 행위”를 하지는 않지만, 이들은 모두 그들의 “모범적 자질”을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고, 자발적으로 그들의 뜻에 순응하기 때문에, 베버가 규정한 카리스마적 권위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세 여성들이 보여 주는 최상의 자질은 그들의 인도에 따라 다른 사람들이 변화하게 하는 원동력이 될 뿐 아니라, 그들이 새로운 영적 혹은 사회적 신분을 얻어서 그에 알맞은 지위의 권위를 갖게 해 준다. 한편, 중세시대에 성인들(saints)이 갖는 영성(spirituality)의 핵심 요소는 “기적과 위대한 행위”(miracles and great deeds)인데, 이것들을 통해 성인들은 “신의 권능의 장소 혹은 매개체”(the loci or media

⁹ 여성의 권위를 세 가지로 분류하는 것은 베버와 피바디(R. I. Peabody), 그리고 초서 연구가 갤러웨이(Andrew Galloway)의 권위 구분 방법을 참고하였다. 카리스마적 권위는, 베버의 세 가지 권위 구분, 즉 입헌 군주제와 같이 법에 근거한 법률적-합리적(legal-rational) 권위, 가정에서 아버지가 갖는 것과 같은 전통적(traditional) 권위, 그리고 그리스도(Christ)와 같이 특별한, 때로는 초자연적이고 초인적인 사람이 갖는 카리스마적 권위로 세분화하는 하는 논의 중에 마지막 권위의 내용을 활용한 것이다. 지위의 권위는, 경찰 등 현대 사회 조직 내의 권위를 연구하는 피바디의 권위 논의, 즉 정당성과 지위에 근거한 형식적(formal) 권위와 기능적(functional) 권위의 원천으로서 기술적 능력과 인간관계 능력(technical competence and human relations skills)에 대한 연구 중 지위의 권위에 관한 논의에 의존한다. 끝으로 영적 권위는, 다양한 사회 계층이 갖는 사회적(social) 권위, 교회와 성직자의 종교적 권위, 그리고 그리스, 로마 문학 작품이 갖는 문학적 권위로 권위를 나누는 갤러웨이의 논의에 도움을 받았다(24-31). 특히 그의 권위 구분과 논의 중에서, “성직자와 귀족의 지배에 대한 오래된 주장에 도전하는”(challenging the shop-worn claims of clerical and aristocratic dominance)(24) 권위의 속성은 세속 권력과 대립하는 영적 권위의 특성을 설정하는데 특히 도움을 주었다.

of a divine power)라는 특별한 존재로 인식된다(Coakley 9). 특히 중세 후기 여성의 영성은, “남성에게 드물게 나타나는 육체적 기적으로 특징지어지는 신체적 영성”(a physical spirituality characterized by fleshly miracles rarely associated with men)의 형태를 가진다(Whitney 309). 인간이 견딜 수 없는 육체적 고통을 인내하거나 고난을 극복한다는 점에서 세 여성들은 모두 육체적 기적을 보여주고, 이를 통해 자신들이 가진 영성을 드러냄으로써 영적 권위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여성의 세 가지 권위에 대한 논의에서 특징적인 것은, 여성의 권위는 여성의 노력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당대의 종교와 세속 권력과의 밀접한 연관성 속에서 생성되고 발현된다는 것이다. 기독교는 가부장제사회의 제약을 넘어 여성이 기독교를 전파시키고 이교도를 개종으로 인도하는 사회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여성이 카리스마적 권위를 가질 환경을 제공한다. 한 편, 세속 권력은 여성의 주체적 사회활동을 제약하고 억압함으로써, 여성이 자신이 갖고 있는 탁월한 인내력과 극복 능력의 자질을 발휘하고 영적 권위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1. 「두 번째 수녀 이야기」: 세실리아

「두 번째 수녀 이야기」는 기독교가 공인되지 않은 신흥 외래 종교로서 로마에서 박해를 받으며 영향력을 확대하는 초기 기독교 시대를 배경으로, 로마의 귀족 여성 세실리아가 다른 로마인들을 기독교로 개종시키는 과정에서 고난을 받고 결국 순교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¹⁰ 가부장제 사회인 로마에서 결혼한 여성인 세실리아가 다른 사람들을 기독교로 개종하도록 인도할 수 있는 것은, 그녀의 모범적 자질을 로마인들이 인정하고 자발적으로 그녀의 가르침을 따르는 그녀의 카리스마적 권위 때문이다.

세실리아가 갖는 카리스마적 권위의 원천이 되는 특별한 자질은 기독교인으로서 근면함, 천사의 보호를 받음, 그리고 지도자 혹은 교육자로서의 탁월함이다. 세실리아는 “부지런한 벌과 같이”(lyk a bisy bee)(VIII 195)¹¹ “한시도 쉬지 않고

¹⁰ 세실리아의 수난(*passio*) 이야기는 기원 후 3세기경의 로마를 배경으로 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5세기 말에 전설로 형성된 것으로 추정된다(Elliott 64).

기도하고,/ 신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며,/ 동정을 지켜주실 것을 신에게 청원한다”(nevere cessed.../ Of hir preyre and God to love and drede,/ Bisekyngne hymn to kepe hir maydenhede)(VIII 124-26). 기독교인으로서 이 같은 부지런함 덕분에 “모든 선하고 현명한 행위의 모범”(Ensample of goode and wise werkes alle)(VIII 105)이 되는 세실리아는 항상 천사의 사랑과 보호를 받는 특별한 존재가 된다.¹² 세실리아의 카리스마적 권위를 구성하는 또 하나의 특성은, 당시 가부장제의 로마 사회에서 여성에게 허용되지 않는 활동, 즉 남성들을 기독교로 개종하도록 이끌고 그들에게 기독교의 교리를 가르치는 그녀의 지도자이자 교육자로서의 뛰어난 능력이다.

세실리아의 카리스마적 권위는, 그녀가 자신의 탁월한 자질을 바탕으로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에게 강요되는 수동성과 침묵을 거부하고, 자신의 의지대로 결혼 생활을 주도할 때, 그리고 남편을 포함한 로마의 남성들을 개종하도록 인도하는 지도자와 새 종교에 대해 가르치는 교육자 역할을 할 때, 그녀에게 명확히 주어지고 또한 드러난다. 남편에게 종속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편을 인도하는 세실리아의 카리스마적 권위는, 남편 발레리안에게 육체관계가 없는 순결한 결혼 생활을 제의하는데서 뚜렷이 확인된다. 결혼 첫날 밤 세실리아는 천사의 보호를 받고 있는 자신의 몸에 남편이 손을 대거나 자신과 육체적인 관계를 갖게 되면 죽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VIII 155-158). 그 대신 만약 남편이 “순수한 사랑”(clene love) (VIII 159)으로 자신을 대해 준다면, 자신을 보호해 주는 천사가 남편 또한 사랑해 주고 “그의 기쁨과 밝은 자태”(his joye and his brightnesse) (VIII 161)를 보여줄 것이라고 말한다. 이처럼 세실리아가 남편에게 “영적 결혼”(a ‘spiritual marriage’)¹³을 제안하고, 결국 두 사람은 순결을 유지하는 부부

¹¹ 초서 작품의 모든 인용은 *The Riverside Chaucer*, 3rd ed. Larry D. Benson (Boston: Houghton Mifflin, 1987)에 근거한다. *The Canterbury Tales*의 인용문은 괄호 안에 묶음(Fragment)과 행(line) 숫자를 표시한다.

¹² 천사가 자신을 보호해 주는 것에 대해, 세실리아는 남편 발레리안에게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저를 극진히 사랑하는 천사가 있는데,/ 그 천사는 제가 깨어 있거나 잠자거나,/ 제 몸을 지켜줄 준비를 하고 있어요”(I have an ungel which that loveth me,/ That with greet love, wher so I wake or sleepe,/ Is redy ay my body for to kepe)(VIII 152-54).

¹³ 법적으로 결혼한 부부가 쌍방 합의하에,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성적 관계를 면제하는 것”(sexual relations have been remitted...for reasons of piety)을 엘리엇(Dyan

로서 살아가게 된다. 자신의 카리스마적 권위 덕분에 남편의 동의를 얻어 “영적 결혼”을 유지하는 세실리아는, 결혼한 딸로서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독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아내들처럼 남편의 소유물이 되지 않아, 여성으로서 자율성 (autonomy)을 확보한다(Martin 153).

천사를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만(VIII 164) 천사가 보호해 준다는 아내의 말을 믿으려는 발레리안을 교황 우르반(Urban)에게 보내 세례를 받고 기독교로 개종하게 인도하는 과정 또한 지도자로서 세실리아의 카리스마적 권위를 확인시켜 준다. 세실리아가 알려 준대로 우르반을 찾아간 발레리안은, “황금 글자가 새겨진 책”(a book with lettre of gold)(VIII 202)에서 한 노인이 읽어 주는 “만물의 아버지”(Fader of alle)(VIII 208)인 신에 관한 구절을 듣는다. 이 경험을 통해 즉각적으로 믿음을 갖게 된 그는, 세례를 받은 후 세실리아와 함께 있는 천사를 직접 보고(VIII 218-19) 그녀의 말을 더욱 신뢰하고 따르게 된다.

남편을 개종시킨 후 그의 동생 티부르스(Tibruce)를 개종시키는 과정에서, 세실리아의 카리스마적 권위는 더욱 강화 된다. 그녀의 권위가 더 강력해 지는 것은, 그녀가 사용하는 언어가 부부사이의 은밀한 것에서 상대의 잘못된 종교를 비판하는 공격적인 것으로 변화하고(Boenig 126), 그녀의 역할이 단순히 기독교로 인도하는 안내자를 넘어 교리를 가르치는 교육자로 발전하기 때문이다. 남편 발레리안에게 순결한 결혼 생활을 제안할 때, 세실리아는 아내로서 남편에게 자신의 상황을 고백하고 그를 설득하는 온화한 언어를 사용한다. “오, 사랑스럽고 사랑 받는 소중한 당신,/ 당신이 들어 주시겠다면, 비밀이 하나 있어요.../ 그것을 누설하지 않겠다고 맹세해 주세요”(O sweet and wel biloved spouse deere,/ Ther is a conseil, and ye wolde it heere.../ So that ye swere ye shul it nat biwreye)(VIII 144-47). 반면에 티부르스에게 로마의 기존 종교 관행에 대해 언급할 때 그녀는, “말 못하고...귀머거리인”(dombe...deve) “모든 우상은 헛된 것이다”(alle ydoles nys but a thyng in veyn)(VIII 286, 285)라고 단호하게 지적하면서, 로마의 다신교를 가치 없는 우상 숭배로 격하시켜 비난한다. 또한 삼위일체(Trinity)와 그리스도의 수난과 재림, 그리고 구원 등 기독교의 핵심 내용을 티부르스에게 직접 가르쳐서(VIII 320-47) 그가 기독교로 개종하도록 함으로써, 세실

Elliott)은 “영적 결혼”이라고 부르며, 이러한 관행은 초기 기독교 시대부터 계속된 것이다(3).

리아는 기독교 교리 교사 역할도 한다.

그녀의 뛰어난 자질 덕분에 세실리아가 카리스마적 권위를 갖는 반면에, 견디기 어려운 육체적 고난을 극복하는 기적을 보여줌으로써 그녀는 영적 권위와 지위의 권위를 갖게 된다. 그런데 기적은, 그녀가 지도자이자 교육자의 자질을 공개적으로 발휘하는 특정한 상황, 즉 그녀의 카리스마적 권위가 이 권위를 부정하는 세속 권력과 충돌하고 대립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세실리아의 영적 권위가 형성되고 발현되는 것은 세속 권력의 대항자로서 법의 수호자인 로마의 판사(prefect) 알마키우스(Almachius)와 공공연하게 대적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로마인을 기독교로 개종시킨 세실리아를 법에서 금하는 행위를 한 범법자로 법정에 세움으로써 그녀의 카리스마적 권위를 부인하는 알마키우스는, 재판관으로서 권위 있는 언어 사용을 통해 그녀를 제압하려고 시도한다. 하지만 세실리아는 자신에게 카리스마적 권위를 부여해 준 지도자와 교육자의 자질의 근간이 되는 탁월한 논리력과 통찰력 있는 언변을 사용해 그의 지적인(intellectual) 싸움에서 결국 승리한다.

알마키우스와 대적하면서 세실리아는 마치 주의 깊은 “논리학자”(logician)(Masi 60)처럼 상대가 한 주장의 논리적 오류를 정확히 밝혀냄으로써, 언어를 사용해 상대를 압도한다. 알마키우스가 자신의 “종교와...신앙”(religioun and...beleve)(VIII 427)에 대해 묻자, 세실리아는 그의 질문이 “하나의 [같은] 질문에 두 가지 답이 포함되기를 원한다”(that wolden two answeres conclude/ In o demande)(VIII 429-30)고 답함으로써, 그의 질문에 내포된 오류를 논리적으로 지적한다. 또한 세실리아는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자신의 탁월한 통찰력을 발휘해서, 알마키우스가 말로써 자신을 압도하려는 시도를 완전히 무산시킨다. 알마키우스가 기독교를 허용하지 않는 “강력한 군주”(myghty princes)(VIII 444)의 법을 강요하면서 법의 집행자인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자, 세실리아는 알마키우스가 가진 권력의 속성과 한계를 정확히 제시해 준다. 세실리아는 알마키우스의 권력이 “마치 바람이 가득 찬 주머니와 같은”(lyk a bladder ful of wynd)(VIII 439) 것이어서, “뾰족한 바늘 하나”(a nedles poynt)(VIII 440)만으로도 움츠러들게 할 수 있는 무기력하고 무상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세속 권력의 대항자인 알마키우스는 “[남의] 생명을 단지 빼앗을 수 있는...죽음의 대항자”(ne mayst but oonly lyf bireve...Ministre of deeth)(VIII 482, 485)라고 규정

함으로써 그의 권력의 한계를 지적한다.

논리와 지성의 대결에서 세실리아에게 명백하게 패배한 알마키우스가 자신의 권력을 사용해 폭력적 방법으로 그녀를 제압하려 할 때, 세실리아는 그녀에게 가해진 고난을 견뎌내는 기적을 행함으로써 영적 권위를 가지게 된다. 지도자이며 교육자로서 세실리아가 갖는 카리스마적 권위를 부정하고, 알마키우스는 자신이 믿는 신의 우두머리인 쥬피터(Jupiter)에게 분향할 것을 명하지만(VIII 410-13), 그녀는 오히려 우상숭배의 어리석음을 그에게 설명해 준다(VIII 511). 그녀의 확고한 신앙을 확인한 알마키우스의 명령에 따라 “펄펄 끓는 목욕통”(a bath of flambes rede)(VIII 515)에 갇힌 세실리아는, “시원하게, 어떤 고통도 느끼지 않고 앉아 있고”(sat al coold and feelede no wo)(VIII 521), 사형집행인이 세 번이나 목을 내려치고도 “그녀의 목을 두 개로 가르지 못한다”(myghte noght smyte al hir nekke atwo)(VIII 528). 알마키우스의 가혹한 폭력 앞에서 굴복하지 않고 신앙을 지킨 세실리아는 뜨거운 목욕통에서 고통 없이 견디고 목이 잘리고도 살아남는 육체적 기적을 보여 주고 사흘 후에 죽음을 맞이한다.

세속 권력을 지탱해 주는 제도화 되고 합법화 된 폭력인 잔인한 고문과 처형에 굴복하지 않고 저항함으로써, 세실리아는 “순교자, 성녀 세실리아”(martyr, Seint Cecilie) (VIII 28)가 되어, 순교자이자 성인으로서 새로운 영적 권위와 지위의 권위를 갖게 된다. 따라서 세실리아는 자신의 권위에 합당하게 다른 성인들 사이에 매장 되고(VIII 548-49), 순교 전에 자신이 요청한 것처럼 그녀의 집은 “성녀 세실리아의 교회”(the chirche of Seint Cecilie)(VIII 550)로 불리게 되며, 그곳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녀를 위한 “제가 올려지게” (servyse)(VIII 553) 된다.

2. 「변호사 이야기」: 콘스탄스

「두 번째 수녀 이야기」의 세실리아가 로마 국내의 기독교 전파 과정을 보여준다면, 「변호사 이야기」는 국가의 공인된 종교가 된 기독교가 로마를 넘어 해외로 확장 되는 시기에, 콘스탄스가 어떻게 해외 선교 활동에 참여하는지 묘사하고 있다. 로마 황제의 딸로서 콘스탄스가 세실리아보다 신분은 높지만, 자신에게 가해지는 억압적이고 열악한 사회적 환경을 뛰어 넘어, 세실리아처럼 남편에게 “영적 결혼”을 제안하고 평등한 남녀관계와 여성의 자율적 삶을 실현하는 것은 불가능

해 보인다. 콘스탄스의 로마에서 여성이 남녀 관계의 평등성과 삶의 자율성을 실현하기 어려운 것은, 당대의 가부장제 사회 체제 뿐만 아니라 여성 스스로 자신의 삶에 대한 주체성과 자율성을 부정하고 남성의 여성 지배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인식 때문이다. 콘스탄스가 자신의 아버지에게 말하는 것처럼, 여성은 자신의 의지대로 삶을 선택하지 못해서, 결혼이 아버지의 뜻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물론이고(II 282), 여성 스스로 “노예의 신분과 고통을 타고 나서,/ 남자의 지배 아래 살게 마련”(born to thraldom and penance,/ And to be under mannes governance)(II 286-87)인 존재로 자신을 인식한다. 세실리아의 경우와 달리, 콘스탄스가 속한 사회의 여성은 결혼해서 아내가 되면, 부부의 성관계를 “합당한 권리”(skile and right)(II 708)로 생각하는 남편의 뜻에 일방적으로 따라야만 한다.¹⁴

세실리아만큼 남성과 평등하고 주체적인 삶을 영위하지 못하지만, 콘스탄스도 자신의 탁월한 자질과 기적을 통해 세실리아처럼 세 가지 형태의 권위를 갖는다. 먼저 콘스탄스는 로마 밖의 이교도들에게 카리스마적 권위를 갖는데, 이 권위의 원천은 그녀의 비견할 수 없는 “높은 고결함”(greet noblesse)(II 185)이다: “세상이 시작한 이래,/ 아름다움 뿐 아니라 선함의 면에서/ 그녀만한 사람이 없다”(syn the world bigan,/ To rekene as wel hir goodnesse as beautee,/ Nas nevere swich another as is shee)(II 157-59). 그녀의 카리스마적 권위를 구성하는 또 다른 자질은, 역경에 처해서도 그리스도와 성모의 뜻을 따르고, 믿고 의지하는 기독교인으로서 모범적인 자세이다. 시리아로 떠나기 전, 콘스탄스는 기도를 통해 그리스도가 뜻한 대로 자신이 따를 것과 자신의 임무 완수를 위해 그리스도에게 의지할 것을 밝힌다: “하지만 우리의 구원을 위해 돌아가신 그리스도여,/ 명하신 바를 제가 완수할 수 있는 은총을 주소서!”(But Crist, that starf for our redempcioun/ So yeve me grace his heestes to fulfille!)(II 283-84). 그리스도를 따르는 콘스탄스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고통 받고 죽음으로써 인류에게 구원을 가져다 준 것처럼, “야만 국가”(the Barbe nacioun)(II 281)인 시리아에

¹⁴ 화자인 변호사(the Man of Law)가 설명하는 것처럼, “남편에게 예속되어 묶여 사는”(to be bounden under subjeccioun/ Of oon)(II 270-71) 여성들은 “순결한 존재”(hooly thynges)(II 709)로서 자신의 순결을 유지하고 싶은 의지가 있더라도, “반지로 혼인 가약을 한 남편들을/ 즐겁게 하는”(plesynges/ To folk that han ywedded hem with rynges)(II 711-12) 존재가 되어야만 한다.

서 자신이 겪을 고난이 이교도들을 개종시켜 그들이 구원 받는데 이바지하기를 소망한다.

그녀의 탁월한 도덕적 고결함과 모범적인 기독교인의 자질을 이교도들이 인정하고 기독교로 개종함으로써, 콘스탄스는 카리스마적 권위와 지위의 권위를 갖는다. 콘스탄스의 뛰어난 고결함은 로마를 넘어 무역 상인들을 통해 시리아에 알려지고, 그녀의 뛰어난 도덕성을 인정한 시리아의 왕 술탄이 그녀와 결혼함으로써, 그녀는 술탄의 아내라는 지위의 권위를 얻을 뿐 아니라, 술탄이 기독교 세례를 받고 개종함으로써(II 239-40), 카리스마적 권위를 갖는다. 또한 기독교인으로서 자신의 모범적인 삶 덕분에 카리스마적 권위를 갖는 것은, 콘스탄스가 시리아를 떠나 난파한 노섬브리아의 한 성(castle)에서 “기독교의 교리를 설명해 주고”(oure lay declare)(II 572), “고통스런 눈물로 기도”(In orisons, with many a bitter teere)(II 537)함으로써 왕궁 관리인(constable)과 그의 아내 허멘길드(Hermengyld)를 개종으로 인도하는 모습에서도 또한 뚜렷이 드러난다.

기독교 신앙을 지키기 위해 순교하면서 고통을 극복하는 육체적 기적을 보여줌으로써 영적 권위를 갖게 된 세실리아처럼, 콘스탄스도 고난을 받는 중에 기적이 일어남으로써 영적 권위를 갖는다. 세실리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콘스탄스의 영적 권위도 세속 권력과의 밀접한 연관성 속에서 생성 된다.

콘스탄스가 영적 권위를 갖게 되는 첫 번째 기적은, 아들의 권력을 빼앗아 시리아를 지배하려는 술탄의 어머니(the Sultanness)의 권력 탈취 시도와 콘스탄스의 카리스마적 권위가 대립한 결과로 가능하게 된다. 자신이 개최한 연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술탄과 모든 기독교도들이/ 식탁에서 칼에 찔려 난자당하게”(The Sowdan and the Cristen everichone/ Been al tohewe and stiked at the bord)(II 429-30)함으로써, 술탄의 어머니는 아들 대신 “자신이 나라 전체를 다스리려”(hirsself wolde al the contree lede)(II 434) 획책한다. 세속 권력인 술탄의 개종이 이교도를 기독교로 인도한 콘스탄스의 카리스마적 권위와 지위의 권위를 확인시켜 준 것과는 반대로, 술탄 어머니의 세속 권력 찬탈 시도는 개종으로 이끄는 지도자로서 콘스탄스의 카리스마적 권위와 술탄의 아내로서 그녀의 지위의 권위를 모두 부정한다.

새롭게 등장한 세속 권력에 의해 권위가 부정된 콘스탄스는 더 이상의 시리아인 개종 노력을 포기한 채, “시리아에서 이탈리아로/ 알아서 다시 항해해 되돌아

가라”(learne saille/ Out of Syrrye agaynward to Ytaille)(II 440-41)는 권력의 명령을 받는다. 하지만 세속 권력에 의해 부과된 항해는 그녀가 고난을 극복함으로써 영적 권위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준다. 노섬브리아에 도착하기 전까지 “3년 이상의 시간 동안”(Thre yeer and moore)(II 499), “키가 없는 배”(a ship al steerelees)(II 439)를 타고, 먹을 것도, 마실 물도 없이 홀로 바다를 항해해야 하지만, 콘스탄스는 이 위험하고 고통스러운 항해에서 홀로 살아남는 “놀라운 기적”(wonderful myracle)(II 477)을 보여준다. 콘스탄스의 기적은 고난 속에서도 더욱 굳건히 그리스도에게 의존하는 그녀의 굳건한 신앙심 덕분이다: 콘스탄스는 “승리의 나무여, 진리의 수호자여...저를 지켜 주시고, 저의 삶을 바꿀 수 있는 힘을 주소서”(Victorious tree, proteccioun of trewe...Me kepe, and yif me myght my lyf t’amenden)(II 456, 462)라고 기도한다.

콘스탄스가 노섬브리아에서 알라(Alla) 왕 앞에서 받는 재판은, 세실리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카리스마적 권위를 갖는 여성과 세속 권력이 직접 충돌함으로써 여성이 영적 권위를 부여 받게 되는 또 다른 예가 된다. 콘스탄스가 자신의 사랑을 받아 주지 않자(II 589) 실망한 한 기사(knight)는 그녀가 허멘길드를 살해했다고 거짓 증언을 하고, 이 때문에 콘스탄스는 살인혐의로 재판을 받는다. 도와 줄 사람이 아무도 없이 재판을 받으면서, 콘스탄스는 신에게 “제가 이 범죄에 죄가 없다면,/ 저의 구원자가 되어 주소서. 그렇지 않으면 저는 죽습니다!”(If I be giltlees of this felonye,/ My socour be, for ellis shal I dye!)(II 642-43)라고 도움을 간청하면서, 신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자 별안간 손이 나타나 거짓말을 한 기사의 목을 내려치고, “너는 죄 없는, 높은 신분의 신성한 교회의 딸을 비방했노라”(Thou hast desclaundred, giltlees,/ The doghter of hooly chirche in heigh presence)(II 674-75)는 목소리가 들린다. 신이 사람들에게 직접 손을 내밀고 말을 하는 기적을 통해 그녀의 결백을 옹호해 줌으로써, 콘스탄스는 그녀를 통해 신이 정의를 실현하는 매개체로서 영적 권위를 갖게 되고, 이 기적을 보고 그녀의 권위에 감복한 사람들을 기독교로 개종하게 한다(II 683-86). 세실리아가 고난을 견디어 내는 기적의 삶을 통해 영적 권위와 지위의 권위를 얻는 것처럼, 콘스탄스도 죄 없이 재판을 받는 고행 중에 신이 발현하는 기적을 통해 영적 권위와 더불어 알라 왕의 아내라는 지위적 권위를 또한 갖게 된다(II 690-92).

3. 「학자 이야기」: 그리셀다

「변호사 이야기」의 콘스탄스가, 자신의 삶의 주체성과 자율성을 스스로 부인하고 남성에게 종속된 여성의 위치를 당연시함으로써 권위 없는 인물로 보인 것처럼, 「학자 이야기」의 그리셀다 또한 그녀의 낮은 사회적 지위와 여성 스스로 남성에게 종속된 존재로 보는 가부장제적 인식 때문에, 어떤 형태의 권위와도 거리가 있는 인물처럼 보인다. 먼저 그리셀다는, 로마 귀족의 딸 세실리아와 로마 황제의 딸 콘스탄스와 달리, 이탈리아 서부 롬바르디아(Lombardy) 평야 지역의 농민의 딸이라는 낮은 사회적 신분과 가난한 자들 중에서 가장 궁핍한 가정 형편 때문에 권위를 갖기 어려워 보인다. 또한 그녀는 남편 월터(Walter)에게 “저의 죽음이 당신을 편안하게 한다면, 당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 저는 기쁘게 죽겠습니다”(For wiste I that my deeth wolde do yow ese,/ Right gladly wolde I dyen, yow to plesse)(IV 664-65)라고 말함으로써, 인간으로서 갖는 자율성을 자기 스스로 완전히 포기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욕망의 도구’(an instrument for his ‘lust’)(Aers 170)로만 보는 월터의 아내라는 자신의 위치를 하인으로 격하시킴으로써, 더욱 권위와 거리가 멀어 보인다.

하지만, 세실리아와 콘스탄스와 마찬가지로, 그리셀다 역시 그녀의 모방하기 어려운 뛰어난 덕행 덕분에 다른 사람이 변화함으로써 카리스마적 권위를 갖는다. 그런데 기독교 전파를 위한 활동을 하면서 자신들의 특별한 자질이 사람들 사이에 잘 알려진 세실리아와 콘스탄스의 경우와 달리, 그리셀다의 “아름다운 덕행”(vertuous beautee)(IV 211)은 그녀가 사는 “살루조”(Saluces)(IV 63) 지역 사람들에게 거의 알려지지 않는다. 오직 그 지역의 지배자인 후작(marquis) 월터만이 그녀의 특출한 자질, 즉 그녀가 딸로서 아버지에 대해 갖는 “복종심과 근면함”(obeisaunce and diligence)(IV 230) 그리고 그녀의 “성숙하고 지조 있는 품성”(rype and sad corage)(IV 220)을 알아본다. 그리셀다의 뛰어난 덕성을 월터가 인정하고, 그 결과 결혼하지 않으려는 자신의 마음을 바꿔 그녀를 아내로 맞이하게 됨으로써, 그녀는 월터의 자발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카리스마적 권위를 갖게 된다. 또한 그가 공개적으로 사람들에게 요청하는 것처럼 그리셀다는 영주 아내(marquioness)로서의 지위의 권위 또한 갖게 된다: “그는[월터는] ‘여기 서 있는 이 사람이 나의 아내다,/ 청하건데, 나를 사랑하는 그녀를/ 영예롭게 해주고

사랑하거라. 그것이 내가 원하는 전부다'라고 말했다”(“This is my wyf, quod he, ‘that standeth heere./ Honoureth hire and loveth hire, I preye,/ Whoso me loveth; ther is namoore to seye’)(IV 369-71).

그리셀다의 카리스마적 권위의 원천인 지조의 미덕이 처음에는 월터에게만 알려지고, 결혼 후 오랜 기간의 시험 후에 공개적으로 인정된 것처럼, 그녀의 지위의 권위 또한 세 여주인공들 중에 독특하다. 순교자이자 성녀로서 세실리아와 술탄의 왕비, 알라의 왕비로서 콘스탄스가 지위의 권위를 단지 소유한다면, 그리셀다는 영주 아내가 갖는 지위의 권위를 기반으로 자신의 “타고난 지배자”(a natural ruler)(Martin 143)의 자질을 공공연하게 드러낼 기회를 갖기 때문이다 (IV 432-37).

그리셀다가 지위의 권위를 발휘해서 사람들 사이의 “불화, 원한”(discord, rancour)(IV 432)을 중재할 때, 단지 그들 사이에 “화해”(aton)(IV 437)만을 가져온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¹⁵ 그녀가 “불화, 원한”의 해결방안으로 “화해”를 추구하는 것은 그녀의 지위의 권위와 세속 권력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기 때문이다. 영주의 아내로서 그리셀다가 갖는 지위의 권위는, 월터가 지배자로서 갖는 권력의 강제성과 그의 명령에 대한 의무적인 복종이 결합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리셀다의 딸을 빼앗아 가면서 월터의 익명의 부하가 말하듯이, 세속 권력인 월터의 명령은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적으로 준수 되어야 하는 것이다: “지배자의 명령을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그 명령에 대해 슬퍼하거나 불평을 할 수는 있어도, 우리는 그의 의지에 복종해야 합니다”(That lordes heestes mowe nat been yfeyned;/ They mowe wel been biwailed or compleyned,/ But men moote nede unto hire lust obeye)(IV 529-31). 하지만 만(Jill Mann)이 지적하는 것처럼, “여성의 권력은...실체 없고 제한적인 것”(female power [is]...

¹⁵ “강압적인”(coercive) 방법 대신에, 사람들 사이의 불화를 중재해서 화해를 이끌어 내는 그리셀다는, 시에나의 캐서린(Catherine of Siena)처럼 중세 후기에 세속적인 삶을 산 “종교적인 여성들”(mulieres religiosae)의 삶의 방식과 유사하다: “세속적인 남성들과 달리, 그들은 권력욕에 이끌리거나 강압적인 행위를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공동의 선, 사회의 복지라는 이상에 좌우되었다”(Unlike secular men, they were not led by lust for power and were not prepared to use coercive action, but were driven by the ideals of the common good, the well-being of the community)(Mulder-Bakker 154).

illusory and limited 131)이기 때문에, 그리셀다의 지위의 권위는 월터의 권력과 같을 수 없다.

지위가 곧 권력을 보장해 주는 남성의 경우와 달리 여성은 지위의 권위를 갖는다 해도 권력은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만약 여성이 권력을 추구한다면 그 시도는 실패로 귀결되고, 권력을 추구한 여성은 “진정한 여성이 아닌”(not truly women at all) “사탄의 도구이자 유형”(tools and types of Satan)으로 인식되어, “성적인 것은 물론이고 인간적인 개체성마저 박탈당했다”(forfeited human, as well as sexual, identity)(Delany 42). 권력을 얻고자 시도하지만 결국 실패하는 여성의 모습은, 『변호사 이야기』에서 시리아의 왕 술탄의 어머니로서 지위의 권위를 갖는 익명의 왕후와 노섬브리아의 왕 알라의 어머니 도네길드(Donegild)에서 확인된다. 아들에게서 시리아를 지배할 권력을 빼앗기 위해, 술탄의 어머니는 왕의 모후라는 자신의 지위의 권위를 이용해, 콘스탄스와 술탄의 결혼식에 참석한 사람들 중에, 콘스탄스만 제외하고 아들을 포함한 모든 기독교인을 살해한다(II 429-31). 이 같은 학살을 통해 아들로부터 국가 권력을 탈취하지만 술탄의 어머니가 갖는 권력은 일시적이고 불안정한 것으로 판명된다. 그녀가 많은 기독교인들을 살육한 것에 대해 로마가 “대규모 복수”(heigh vengeance)(II 963)를 하기 위해 시리아를 공격해 오자, 그녀의 지배 권력이 동요하기 때문이다. 남성 권력에 대한 반란을 통한 그녀의 권력 추구는, 또 다른 세속 권력인 로마에 패배한 후 결국 그녀의 지배력 상실로 귀결 되고, 그녀는 “남성의 지위를 찬탈하는 여자...사악함으로 유명한 여왕.../ 오 여자 형상을 한 뱀”(Virago...Semyrame.../ O serpent under femynnytee)(II 359-60)으로 불리며, 그녀의 여성성과 인간성이 모두 부인된다.

아들 알라가 이방인 콘스탄스를 아내로 맞이한 것에 반발해서(II 699-700) 그녀를 몰아내기 위해 편지를 위조하는 도네길드는, 여성이 지위의 권위를 이용해 권력을 추구하다 실패하는 또 다른 예를 보여준다. 스코틀랜드 원정군을 지휘하는 알라와 콘스탄스를 보호하는 성주 사이의 서신교환을 담당하는 전령은, 도네길드가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왕의 모후로서의 그녀의 지위의 권위를 인정해서 그녀에게 왕자 마우리시우스 (Mauricius)의 탄생과 알라의 소식을 전해 준다. 이 같은 그녀의 지위의 권위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자신을 지켜줄 권력이 없기 때문에, 거짓 편지로 콘스탄스와 마우리시우스를 몰아 낸 것이 발각 되자 자신의 아들

에게 살해 당한다: “알라는.../ 자신의 어머니가 충성을 거역한 반역자여서/ 그녀를 살해했다”(Alla.../ His mooder [Donegild] slow.../ For that she traitour was to hire ligeance)(II 893-95). 술탄의 어머니처럼, 도네길드도 왕의 권력에 반항함으로써 권력을 가진 “남성적 역할의 찬탈”(usurpation of a masculine role)(Martin 134)을 시도하지만, 권력은 알라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이 권력 앞에 지위의 권위만을 가진 그녀는 속수무책인 것이다. 결국 술탄의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권력을 추구한 도네길드도 “남성 같은...악마적 존재”(mannysh... feendlych spirit)(II 782-83)라고 비난 받으며, 그녀의 여성성과 인간성이 동시에 부정된다.

그리셀다가 지위의 권위를 사용해서 “화해”를 추구하는 것과 술탄의 어머니와 도네길드가 지위의 권위 이외에 권력을 추구하다 파멸하는 것은 여성이 지위의 권위와 권력을 모두 소유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 준다. 세실리아와 콘스탄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카리스마적 권위와 지위의 권위를 갖는 그리셀다는 남편 월터가 가진 세속 권력과 갈등관계 속에서 영적인 권위를 획득하게 된다. 남편 월터의 임의의 가혹한 시험에 직면해서 그녀가 보여 주는 특별한 자질, 즉 남편 월터가 가하는 막대한 시련을 초인적으로 인내하는 “기적”이 그녀의 영적 권위의 원천이 된다.

자신의 미덕 덕분에 그리셀다는 영주의 아내가 되어 카리스마적 권위와 지위의 권위를 갖지만, 영주인 남편 월터가 백성들을 핍제 삼아, 어린 딸과 아들을 자신에게서 빼앗아 가는 상황에서, 그녀는 남편의 부당한 시험에도 변함없이 “인내”(pacienc)(IV 1044)하는 “아내의 지조”(wyfly stedfastnesse)(IV 1050)를 보여준다. 그녀의 무조건적인 복종과 인내, 그리고 변함없는 지조는 결국 월터가 “아내로서 그녀의 한결같은 마음을 동정하기 시작해서”(gan his herte dresse/ To rewen upon hire wyfly stedfastnesse)(IV 1050), 근거 없이 그녀를 시험하는 것을 중단하게 한다. 마침내 월터는 “이것으로 충분하다, 나의 그리셀다여”(This is ynogh, Grisilde myn)(IV 1051)라고 말하며, 그녀를 다시 아내로 맞아들인다. 다른 사람이 흉내 낼 수 없는 인내심을 갖고 아내로서의 지조를 지킨 그리셀다는, 월터가 가하는 무자비한 심리적 고통을 극복하는 육체적 기적을 보여주고, “아내가 바라는 대로 충실히 이행하는 월터”(Walter hire dooth so feithfully plesauce)(IV 1111)로 남편을 변모하게 하는 영적 권위를 갖는다. 그

리셀다의 영적 권위는 그녀가 단순히 지조 있게 남편을 대하는 바람직한 아내의 자세, 혹은 그리셀다 이야기의 라틴어 원저자인 페트라르카(Petrarch)가 의도한 대로, “어떤 신분에 있든지 모든 사람은/ 고난에 처해서도 지조를 지켜야 한다”(But for that every wight, in his degree,/ Sholde be constant in adversitee)(IV 1145-46)는 도덕적 교훈을 넘어,¹⁶ 성인들처럼 그녀의 삶이 신의 처사에 대한 바람직한 인간의 자세를 가르치는 신의 도구 혹은 매개체라는 점에서도 또한 확인할 수 있다. “필멸하는 남자[월터]에게도 여자[그리셀다]가/ 큰 인내를 보였으니, 신이 보내주시는/ 모든 것을, 우리는 기꺼이 받아들여야만 한다”(For sith a womman was so pacient/ Unto a mortal man, wel moore us oghte/ Recetven al in gree that God us sent)(IV 1149-51).

IV. 맺음말

초서의 세 「이야기」에 나타난 여성의 권위는 어떤 형태가 있으며 여성의 권위가 어떻게 생성되는가에 대한 논의는 세속 권력과 종교가 여성의 세 가지 권위 그리고 나아가 여성 전체와 어떤 연관성을 갖는지 보여준다. 먼저 세속 권력은 결혼을 통해 여성에게 지배자의 배우자로서 갖는 지위의 권위를 부여하기도 하고, 이 권력의 행사에 여성이 저항하고 대립하는 과정에서 기적이 일어남으로써 여성이 영적 권위를 갖게 되는 원천이 되기도 한다. 즉 세속 권력은 여성과 결합함으로써 여성이 지위의 권위를 갖게 하고 여성과 대립함으로써 여성의 영적 권위를 가능하게 한다.

한편 종교는 세 여성의 카리스마적 권위와 영적 권위의 원천이 된다. 세 여성은 자신들의 특별한 종교적 자질 덕분에 카리스마적 권위를 갖는다. 또한 세실리아와 콘스탄스는 신이 인간에게 다가 오는 문(door)으로서, 그리고 그리셀다는 다른 사람들이 신에게 다가 갈 수 있는 통로로서 역할을 함으로써, 이들은 모두

¹⁶ 비스코글리오(F. M. Biscoglio)는 “월터가 자신에 대한 그리셀다의 충직함을 시험하는 동안, 그녀는 그에게 완전한 헌신, 성실성, 그리고 ‘진실됨’의 의미를 가르친 것이다”([w]hile Walter is testing Griselda’s fidelity to him, she is teaching him the meaning of total commitment, integrity, and ‘trouthe’)(118)라고 지적하면서, 그녀의 도덕 교사로서의 역할을 강조한다.

“신과 인간 사회의 매개자로서”(as mediaries between God and community) (Fraeters and de Gier 13) 영적 권위를 갖는다.

종교와 여성의 위상과의 관련성은 시대별로 구분해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세실리아는 “초기 기독교 사회의 평등주의적 속성”(the egalitarian nature of the very early Christian communities)(Hagen 43) 때문에 남성과 나란히 가르치고 설교할 기회를 갖는다. 여성을 주변화 시키는 가부장적인 로마사회에서 기대하기 어려운 “혁명적인 새로운 자유”(revolutionary new freedom)(Hagen 43)를 기독교가 그녀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하지만 콘스탄스와 그리셀다의 이야기가 재현하는 것처럼, 종교로서 확립된 이후 기독교는 가부장제와 함께 여성의 주체적 삶을 억압하고 여성을 열등한 존재로 파악하는 또 하나의 억압적인 권력이 된다. 샤하(S. Shahar)가 지적하는 바대로, “교회는 중세 사회 전반에서 열등한 여성의 지위를 생성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한 것이다”(the church played a considerable part in fostering inferior status of women in medieval society in general)(88).

이 세 『이야기』에서 공통적으로 강조되는 것은, 가부장제와 억압적인 기독교의 통제하에 있는 여성의 “노예와 같은 복종의 지위”(position of slave-like submission) 혹은 “기독교 사회의 맥락에서 여성의 억압”(the oppression of women in the context of Christian society)이 아니다(Martin 147). 이 세 『이야기』에서 높이 평가 되는 것은 여성이 고통을 받아들이고 인내하는 것이 놀랄만한 기독교인의 미덕이라는 점이다. 세 『이야기』의 여주인공들이 갖는 기독교인으로서의 탁월한 자질이 여성이 권위를 갖는 원천이 된다는 것을 보여 줌으로써, 초서는 남성에 비해 열등한 존재 혹은 남성과 대등한 존재로 여성을 보는 것을 넘어, 존중하고 우러러볼 대상으로 여성을 파악한다.

또한 초서는, 마치 중세시대 “권위 있는 작가”(a writer and an authority)가 “단지 읽혀질 뿐만 아니라 존경 받고 모방되는 인물”(someone not merely to be read but also to be respected and imitated)인 것과 같이(Gatland 16), 세 여성들을 권위 있는 인물로 제시함으로써 이들을 모두 바람직한 “거룩한 교회의 딸”(the doghter of hooly chirche)(II 675), 우러러보고 본 받을만한 기독교인의 모범으로 제시한다.¹⁷ 당대의 “처녀-순교자”(virgin-martyrs)에 관한 문학이 “젊은 여성을 훈육하는 유용한 도구”(useful tools in the training of young

women)의 역할을 한 것처럼(Lewis 25), 세 여주인공들을 단순히 과거의 인물이 아니라 당대의 세련된 귀부인들로 묘사함으로써(Winstead 113), 초서는 이들을 당대의 귀부인들이 행동의 규범으로 삼아야할 모범적 인물로 제시하는 것이다.

주제어 | 초서, 『캔터베리 이야기』, 「두 번째 수녀 이야기」, 「변호사 이야기」, 「학자 이야기」, 여성의 권위, 종교, 세속 권력

인용문헌

- Aers, David. *Chaucer, Langland and the Creative Imagination*.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1980.
- Ashton, Gail. "Feminisms" In *Chaucer: An Oxford Guide*. Ed. Steve Ellis. Oxford and New York: Oxford UP, 2005. 369-83.
- Barratt, Alexandra, ed. *Women's Writing in Middle English*. London and New York: Longman, 1992.
- Benson, Larry D., ed. *The Riverside Chaucer*. 3rd ed. Boston: Houghton Mifflin, 1987.
- Biscoglio, F. M. *The Wives of the Canterbury Tales and the Tradition of the Valiant Woman of Proverbs 31: 10-31*. San Francisco: Mellen Research UP, 1993.
- Boenig, Robert. *Chaucer and the Mystics: 'The Canterbury Tales' and the Genre of Devotional Prose*. London: Associated UP, 1995.
- Boffey, Julia. "Middle English Lives." In *The Cambridge History of Medieval English Literature*. Ed. David Wallace. Cambridge and New York: Cambridge UP, 1999. 610-34.
- Chilver, G. E. F. "Augustus and the Roman Constitution 1939-50." *Historia* band 1 (1950).
- Classen, Albrecht. *The Power of a Woman's Voice in Medieval and Early Modern Literatures: New Approaches to German and European Women Writers and to Violence against Women in Premodern Times*. Berlin and New York: Walter de

¹⁷ 세 여인의 삶을 모두 성인의 삶으로 규정하고 논의하는 보피(Julia Boffey)는, 단지 세실리아의 삶에 순교(martyrdom)가 포함된 반면 콘스탄스와 그리셀다의 삶은 순교가 결여된 점에서만 차이가 있다고 본다(624).

- Gruyter, 2007.
- Coakley, John W. *Women, Men, and Spiritual Power: Female Saints and Their Male Collaborators*. New York: Columbia UP, 2012.
- Crane, Susan. *Gender and Romance in Chaucer's Canterbury Tales*. Princeton: Princeton UP, 1994.
- Delany, Sheila. *Writing Woman: Women Writers and Women in Literature, Medieval to Modern*. New York: Schocken Books, 1983.
- Diamond, Arlyn. "Chaucer's Women and Women's Chaucer." In *The Authority of Experience: Essays in Feminist Criticism*. Ed. Arlyn Diamond and Lee R. Edwards. Amherst: U of Massachusetts P, 1977. 60-83.
- Dinshaw, Carolyn. *Chaucer's Sexual Poetics*. Madison: U of Wisconsin Press, 1989.
- Douglas, Gavin. "Venerable Chaucer, All Womanis Friend." In *Chaucer: The Critical Heritage. Volume 1, 1385-1837*. Ed. Derek Brewer. London: Routledge and Kegan Paul.
- Elliott, Dyan. *Spiritual Marriage: Sexual Abstinence in Medieval Wedlock*. Princeton: Princeton UP, 1993.
- Fraeters, Veerle and Imke de Gier, ed. *Mulieres religiosae: Shaping Female Spiritual Authority in the Medieval and Early Modern Periods*. Turnhout, Belgium: Brepols, 2014.
- Galloway, Andrew. "Authority." In *A Companion to Chaucer*. Ed. by Peter Brown. Oxford: Blackwell, 2000. 23-39.
- Gatland, Emma. *Women From the Golden Legend: Female Authority in a Medieval Castilian Sanctoral*. Woodbridge and Rochester: Boydell & Brewer, 2011.
- Hagen, Susan K. "Feminist Theology and 'The Second Nun's Tale': Or, St. Cecilia Laughs at the Judge." *Medieval Perspectives* 4-5 (1989-90).
- Hansen, Elaine Tuttle. *Chaucer and the Fictions of Gender*. Berkeley and Los Angeles: U of California P, 1992.
- Kalberg, Stephen, ed. *Max Weber: Readings and Commentary on Modernity*. Malden: Blackwell Pub., 2005.
- Karras, Ruth Mazo. *Common Women: Prostitution and Sexuality in Medieval England*. New York: Oxford UP, 1996.
- Kittredge, George Lyman. "Chaucer's Discussion of Marriage." *Modern Philology* 9 (1912): 435-67.
- Lewis, Katherine J. "Model Girls? Virgin-Martyrs and the Training of Young Women in Late Medieval England." In *Young Medieval Women*. Ed. Katherine

- J. Lewis, Noël James Menuge and Kim M. Phillips. New York: St. Martin's P, 1999. 25-46.
- Mann, Jill. *Geoffrey Chaucer*. New York and London: Harvester Wheatsheaf, 1991.
- Martin, Priscilla. *Chaucer's Women: Nuns, Wives, and Amazons*. Iowa City: U of Iowa P, 1990.
- Masi, Michael. *Chaucer and Gender*. New York: Peter Lang, 2005.
- Meale, Carol M. "Women's Voices and Roles." In *A Companion to Medieval English Literature and Culture C.1350-C.1500*. Ed. Peter Brown. Malden, MA: Blackwell Publishing, 2007. 74-90.
- Mulder-Bakker, Anneke B. "The Soft Face of Power: Jeanne de Valois and Female Authority in the Middle Ages." In *Mulieres religiosae: Shaping Female Spiritual Authority in the Medieval and Early Modern Periods*. Ed. Veerle Fraeters and Imke de Gier. Turnhout, Belgium: Brepols Publishers, 2014. 151-68.
- Peabody, Robert L. "Perceptions of Organizational Authority: A Comparative Analysis."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6 (1962): 463-82.
- Sanderlin, S. "Chaucer and Ricardian Politics." *The Chaucer Review* 22 (1987): 171-84.
- Scullard, H. H. *From Gracchi to Nero: A History of Rome from 133 B.C. to A.D. 68*. London: Methuen, 1963.
- Shahar, S. *The Fourth Estate: A History of Women in the Middle Ages*. Trans. Chaya Galai. London: Methuen, 1983.
- Szarmach, Paul E., M. Teresa Tavormina, and Joel T. Rosenthal, eds. *Medieval England: An Encyclopedia*. New York: Garland Publishing, 1998.
- Weber, Max. "Power and Domination: Transitional Forms." In *Economy and Society: An Outline of Interpretive Sociology*. Ed. Guenther Roth and Claus Wittich. Trans. Max Rheinstein. Berkeley: U of California P, 1978. 941-54.
- Whitney, Elspeth. "Witches, Saints, and Other Others." In *Women in Medieval Western European Culture*. Ed. Linda E. Mitchell. New York: Garland Pub., 1999. 295-312.
- Winstead, K. *Virgin Martyrs: Legends of Sainthood in Late Medieval England*. Ithaca: Cornell UP, 1997.

ABSTRACT

**Women's Authority, Religion, and Power in Chaucer's
*The Canterbury Tales***

Inchol Yoo

Since Geoffrey Chaucer is a man who is deeply concerned with women's status in a society, women have been one of the main concerns of Chaucer scholarship. By analyzing three of *The Canterbury Tales*—*The Second Nun's Tale*, *The Man of Law's Tale*, and *The Clerk's Tale*,—this study attempts to find the forms of women's authority and elucidate how women's authority is constructed, thus shedding new lights on the topic of women in Chaucer study.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lives of three women depicted in the three *Tales*, this study argues that they commonly possess “charismatic authority,” which is given to each of them when their extraordinary qualities are voluntarily recognized by religious authorities, God, or people. The three women are also given “positional authority,” which allows each of them to have a new position in the society. Moreover, the virtues of the three women enable them to have “spiritual authority” after miracles happen in the midst of their unbearable hardship. While the three women possess charismatic and positional authority when religion and/or secular power acknowledges their virtues, spiritual authority is given to them as a result of their confrontation with secular power.

Key Words | Chaucer, *The Canterbury Tales*, *The Second Nun's Tale*, *The Man of Law's Tale*, *The Clerk's Tale*, Women's Authority, Religion, Power